

광주 유입 70% ‘1인 가구’…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 진행



아이기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뒷 〈3〉 광주 실태

◇광주 출산율 전국 평균에 머물러=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96년 여성 한 명당 1.22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해 전국평균(1.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특·광역시 출생아 수는 광주가 울산 다음으로 적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40만6300명이 태어났는데 광주의 출생아 수는 1만1580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1만900명) 다음으로 적었다.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많이 낳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가 몇 번째 아이인 줄을 파악하는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형이나 누나가 한 명 있는 아이의 통계를 내는 광주의 ‘둘째아’ 수는 4412명에 불과하고, ‘셋째아’ 수도 1356명뿐이다. 이 통계는 아이를 셋 이상 낳는 부부가 1356쌍뿐이라는 말이 된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의 출산율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별 합계 출산율은 광산구가 1.426명, 북구 1.152명, 서구 1.054명, 남구 1.002명, 동구 0.939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인구 격차도 크다. 이 기간 광주시 전체 인구는 130만여명에서 146만여명으로 16만여명(12.3%) 늘었다. 자치구 별 인구는 북구가 44만10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산구 40만3049명, 서구 30만9579명, 남구 21만9729명, 동구 9만5791명 등이다.

◇나홀로 가구만 광주 이주=광주지역 인구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출산이 가능한 가정의 외부 유입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 유입되는 인구 중 71.1%는 1인 가구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 등 다가가

■ 광주 지역 자치구별 인구(출산율)



5~19세 17.9%, 65세 이상 11.7%, 0~4세 4.4% 순이다. 구별로 광산구가 5~34세 비율이 41.2%로 가장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비율은 동구가 20.3%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 관련 지역 예산 늘려야=광주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출생 축하금은 5만원이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100만원 등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1만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를 지원하는 ‘손자녀돌봄비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손자녀를 종일 돌보면 한 달 10만~25만원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24개월 이하 둘째 이상 영유아가 아플 경우 영유아 본인부담 병원진료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 영유아의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급여부분)하며, 2년간 100만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 지급)을 준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제’ ‘지역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광역시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출산 장려책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경제, 교육, 의료 등이 집적화된 수도권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 광역시도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예산의 집중도 필요하다.

지난 2016년 기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부 예산은 수도권 광역시도 4880억원, 지방 광역시도 691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수도권 2920억원, 지방 광역시도 1930억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지만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인당 합계 출산율 1996년 1.22명→2016년 1.17명

2016년 출생아 1만1580명 특·광역시 꼴찌서 두번째

지역별 불균형 심각…출산 장려예산 확대 필요성 대두

노인 인구 많은 광주 동구, 교통·전염병 최하위 등급

광주시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동구 등 구도심이 쇠퇴하고 서구와 광산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특정 지역에만 더욱 인구가 늘어나고, 동구는 계속 주민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의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층 대신,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등 지역 안전지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인구와 출산율이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다는 반증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

개 분야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의 경우 교통과 전염병 등 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 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한 뒤 사망·사고 건수와 위해 정도 등을 계산해 1에서 5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개 분야는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에서 동구청은 자연재해(2등급)와 화재(4등급)를 제외한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여촌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동구지역의 안전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광록기자 kroh@

축 하 합 니 다



“황금 개띠 첫 날에 온 아가야”

영광 박경주씨 셋째 ‘예뵐’

▲영광에 사는 박경주씨의 셋째아이 최예뵐(태명)가 태어났어요. 첫째 오빠가 고민 끝에 최고 예쁜 이름이라고 태명을 지었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1일생)

“황금 개띠의 첫 날에 태어난 소중한 내 아가! 아가야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렴. 또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 알콩달콩 살자”

영광 안민하씨 둘째 ‘알콩이’

▲영광에 사는 안민하씨의 둘째아이 강우가 태어났어요. 태명은 알콩이. 첫째아들 달콩이와 함께 온 가족이 알콩 달콩 잘 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2017년 12월 31일생)

“사랑하는 둘째 아들 강우야.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가족 오래도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항상 건강하고 오래도록 밝게 자라는 강우가 되기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사랑한다 우리 아가!”

<알림>

광주일보 연중기획 I ♥ DREAM 프로젝트 ‘아이기가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idream@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일보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